【P4-12】

수유 형태에 따른 영유아의 성장 발육과 출산 후 어머니의 체중 변화

서희정, 오수연, 김화영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는 수유 형태에 따라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출산 후 어머니의 체중 변화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임신 중 식생활 상태를 조사하였던 조사대상자 중 출산 후 1개월부터 30개월 사이에 주기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수유형태, 영유아의 발달상태 및 산모의 체중 변화를 조사하였다. 영아의 체중증가는 24개월까지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한 영아의 체중증가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그 후에는 수유형태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없어지고 1년이 되었을 때는 인공수유군의 체중증가량이 가장 컸다. 24개월에는 혼합영양군의 체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6개월 이후에는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조제유나 일반우유로 바꾸는데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유수유군, 인공영양군, 혼합영양군의 체중증가량이 27개월이 되었을 때 각각 9.5kg, 10.1kg, 9.4kg으로 나타나 인공영양군의 체중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유아기의 비만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계속된 추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질병 이환율은 1-3개월된 영아 중 모유영양아는 18.2%, 인공영양아는 34.7%, 혼합영양아는 25%로 나타나, 인공영양아가 모유영양아보다 질병 이환율이 높았다. 4-6개월된 영아와 7-9개월된 영아의 이환율도 인공영양아가 모유영양아와 혼합영양아에 비해 질병 이환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질병의 종류로는 감기 이환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 질병으로는 설사, 구토, 장염, 기관지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이염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산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증가된 체중의 감량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산모의 수유여부에 따라 체중변화가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았다. 산모들은 출산 후 9개월까지는 꾸준한 체중 감소를 보였다. 출산 후 6개월에 감소된 체중은 모유수유군 11.4kg, 인공영양군10.8kg, 혼합영양군 9.4kg으로 모유수유군의 체중 감소가 가장 컸다. 9개월이 되었을 때는 3군 모두 12.5kg의 감소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가 24개월까지 계속되었다. 출산 후 24개월 때 어머니의 체중은 임신 전 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하였는데, 모유수유군, 인공수유군, 혼합수유군이 각각 1.9kg, 2.4kg, 2.5kg 증가하여 모유수유군의 체중증가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출산 후 초기에는 다이어트나 체중조절 노력만으로 체중 조절을 이루기는 어렵고, 모유수유가 체중감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성장과 질병 이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한 산모의 체중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중단한 후에는 다른 수유형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으로 모유 수유기간에 따른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01-PJ1-PG1-01CH15-0009)